농촌진흥청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2026. 11. 12.(목) 11:00 / 11. 13.(금) 조간 배포 2026. 11. 12.(목) 06:00

민관협력으로 농가 보급한 암소 번식관리 기술, 국제 혁신상 수상

- 국립축산과학원, 민간 우수 기술 발굴해 시범사업 연계·현장 효과 검증
- 번식관리 교육·현장 상담으로 농가 정착 지원…평균 분만간격 18.4일↓
- 산업체 개발 '수소 특이향 활용 기술', 유로티어 혁신상 은메달 수상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이 민간 우수 기술을 발굴해 시범사업으로 농가 보급을 지원한 '수소 특이향 활용 암소 번식관리 기술'이 11월 10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유로티어(EuroTier) 2026'에서 아시아 최초로 혁신상 은메달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유로티어 혁신상은 독일농업협회(DLG)가 축산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산업체 기술개발과 국립축산과학원의 현장 검증·보급 지원이 결합해 이룬 민관협력 우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소 특이향 활용 기술은 수컷 소의 소변에서 분리한 특정 냄새 물질을 방향제 형태로 활용해 암소의 번식 활동을 돕는 기술이다. 출산 후 발정이 늦어지거나 발정 징후가 뚜렷하지 않아 인공수정 시기를 잡기 어려운 농가의 번식 관리를 돕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 기업 ㈜솔로몬이 개발한 이 기술의 현장 활용 가능성에 주목해 2025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개 시군 35농가에 이어 올해는 12개 시군 61농가를 대상으로 기술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번식 관리 교육과 현장 상담을 진행하고, 농가 적용 효과와 사

용 의견을 수집했다. 지난해 총 22회 교육·상담에 169명이 참여해 농가의 기술 활용을 돕고 보급 확대에 필요한 현장 자료를 확보했다.

시범사업 결과, 암소가 한 번 임신하는 데 필요한 평균 인공수정 횟수는 1.58회에서 1.36회로 줄었다. 송아지를 낳은 뒤 다음 송아지를 낳기까지의 평균 기간인 분만간격도 390.5일에서 372.1일로 18.4일 짧아졌다. 참여 농가에서는 암소의 발정 징후를 이전보다 쉽게 확인해 적기 인공수정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을 냈다.

㈜솔로몬은 국립축산과학원을 해당 기술의 공식 협력기관으로 주최 측인 독일농업협회(DLG)에 등록했다. 유로티어 공식 누리집과 수상 자료집 등에 국립축산과학원 명칭과 로고가 소개됨으로써 민간 기술의 현장 검증과 농가 보급 지원 역할을 국제무대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최소영 과장은 “우수한 기술이 농가에 정착하려면 실제 사육 현장에서 효과를 확인하고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산업체와 지방 농촌진흥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하고 보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시범사업 개요
붙임 2. 수상 개요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책임자	과 장	최소영 (063-238-7200)
		담당자	지도사	이경은 (063-238-720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붙임 1 **시범사업 개요**

□ 사업명

○ 수소 특이향 함유 방향제 활용 암소 번식장애 개선 시범('25~'26)

□ 목 적

○ 수소 특이향 함유 방향제를 이용한 암소의 공태기간 단축 및 수태율 향상

○ 신개념 탄소 저감 기술 보급으로 번식장애 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

* 공태기간: 출산 후 다음 임신까지 걸리는 기간

□ 사업개요

○ 사업량: '25년 7개소 / '26년 12개소

○ 사업규모: 개소당 5농가

- 농가당 한우 번식우 50마리 이상 또는 착유우 30마리 이상
- 축종별 효과 확인을 위해 가급적 한우 3~4농가, 젖소 1~2농가 선정

○ 적용기술: 수소 특이향 함유 방향제 설치 및 번식관리 기술 적용

□ 지원내용 및 추진실적(2025년 기준)

○ 지원내용: 수소 특이향 함유 방향제, 인공수정 관련 기기, 번식관리 교육·컨설팅(4회 이상)

○ 추진실적: 7개 시군 35농가 대상 교육·컨설팅 22회 실시, 169명 참여

□ 관련사진



<시범농가 교육>



<현장기술지원>



<수소 특이향 거치>



<시범사업 홍보>

붙임 2 **시범사업 개요**

〈 수상기술 〉

◈ 수소 특이향 함유 방향제 활용 암소 번식장애 개선 시범

- (시범사업) ('25) 7개소(35농가), ('26) 12개소(61농가)

  * (기술효과) 수소 특이향 처리 그룹에서 분만 후 첫 발정재귀일 평균 14일 앞당김

□ 수상개요

○ 행사명: EuroTier 2026(11.10.~11.13.), Innovation Award*금메달4·은메달27

* 독일 EuroTier : 세계 최대 규모의 축산 전문 박람회(독일농업협회 DLG 주최)

○ 일시·장소: '26. 11. 10.(화) 10:00~ / 독일, Hannover *격년개최

○ 수상내용: 전 세계 176개 첨단 기술 중 최종 27개에만 부여되는 '혁신상 은메달' 수상 확정 * 아시아 및 국내 최초

○ 수상자: ㈜솔로몬 * 해당기술개발 및 신기술시범사업 참여기업

○ 수상기술: 'ReproScent 시리즈'(수컷 페로몬 활용 가축 번식관리 기술)

〈 국립축산과학원을 공식 '기술개발 협력기관' Reference 등록 〉

◇ 수상 기업인 ㈜솔로몬 측에서 우리 원을 **'공식 기술개발 파트너 및 협력기관'**으로 주최측(DLG[1])에 최종 등록

⇨ 공식 Reference 등록에 따른 기대 성과

①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원 브랜드 홍보** 및 대한민국 축산 위상 강화

* 유로티어 공식 홈페이지, 수상 디렉토리북, 현장 파트너 보드에 국립축산과학원(NIAS) 명칭 및 로고 지속 노출 등

② 국가의 지원과 민간개발 기술의 상용화가 결합해 해외시장 개척한 사례홍보

□ 향후계획

○ 민관협력을 통한 우수기술 적극발굴 및 농가 보급·확산 강화

1) DLG(독일농업협회, Deutsche Landwirtschafts-Gesellschaft)